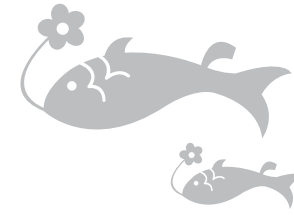


바른정법을 행할 때만 부처님의 가피는 있다



당신은 길에서 중병, 신병, 시한부 등.....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그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 길을 떠난 3명의 나그네가 있었다. 한참을 길을 가다 첫 번째 나그네가 내려야 할 곳에 이르러 되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다.

그는 평생 험벗고 굶주림을 참아가며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이제 살만하게 되자 결국 써보지도 못하고 내리게 되니 사람들이 안됐다고.....
불쌍하다며..... 허를 차는 가운데 다시 여행은 시작되고,

이번에는 두 번째 나그네가 내리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합니다.
그는 우리들에게 좋은 글과 좋은 말과, 좋은 언설로 우리와 함께 했던 그가 내리게 되자 아쉬워하는 겁니다.

또 다시 여행은 시작됐고, 이번에는 세 번째 나그네가 내리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젖어 그가 우리 곁에서 좀 더 머물다 내리기를 아쉬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행 중에 항상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병든 이들을 위해 보살피며 치료도 해 주고, 병도 치유케 해 주었던 겁니다. (고 이태석 신부처럼)

당신은 어느 나그네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직도 말과 화두를 붙잡고 앉아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 종교 할 것 없이 글 잘 쓰는 이와 말 잘하는 이들이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썩은 고목이 되기 전에 입은 굳게 다물고, 행원보살로써 걸어갑시다.

1. 세브란스 병원에서 100일이 안된 사내아이의 목에 손가락 한마디만 흑이 있어 수술 3일전 절에 들러 스님 기도를 단 한번 받고, 그 다음날 입원하여 의사가 확인해 보니 흑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원이 생겨있고, 그 원 속에 점이 3개 있었음 (서울 흥제동)

2. 결혼 4년차에 겨우 임신은 했으나 자궁에 큰 흑과 목에 갑상선이 발견되어 병원과 상의하던 중, 스님이 서울 와서 단 한번의 기도로 자궁내의 흑과 갑상선이 사라지고 없었음.
자궁내의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서 얼마 전에 출산했음 (서울 목동)

3. 일산 백병원 산부인과 응급실에서 두 번째 아이 출산을 20여일 앞둔 산모가 뱃속에 이상이 생겨 10 여일 동안 고통이 너무 심해 진통제 말고는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내고 있을 때 (그 당시 뱃속의 아이를 포기해야 될 상태였음) 그 부모로부터 연락을 받고 스님 기도로 다음날 무사히 퇴원하여 지금 그 당시 아이는 잘 자라고 있음 (김포)

4.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어머니가 자궁에서 시작된 암세포가 입원, 퇴원을 2년 넘게 반복하면서 결국엔 4군데(자궁, 간, 폐, 유방)로 전이되자 병원은 급기야 이제는 힘들다고 하니 그 형제들이 스님한테 부탁해서 기도는 3일 받고, 21일 만에 병원에 가니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더라고 함.
의사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길래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함. 왜 병원가면 "절대 얘기하지도 말고 소문 내지 말라."고 스님께서 일렀기 때문에..... (양평 양수리)

5. 대구에서 비구니 스님이 몸이 많이 아파 찾아 왔길래 "아프면 병원을 찾아야지."하니 큰 병원에 가도 낫지를 않는다고 해서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아팠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어릴 적 감전사를 당했는데, 그 때 이후로 조금씩 아프다가 점점 심해져서 지금은 참기 어려운 정도로 많이 아프다고 하길래.....
"그게 아니다. 잘못 알고 있다."고 얘기하여 주고, 불자님 입회하에 스님이 경을 읽으며 기도해 주자, 혼자 간질환자처럼 뒹굴면서 "스님이 하는 염불을 어린아이들이 알아듣지 못해요."라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렇게 3분 정도 지나자, 언제 그랬냐는듯이 일어나서는 바로 은혜를 갚기 위해 공양주를 하겠다고 하길래 그럴 필요없다고 잘라 말하고, 이 시간 이후 재현되지 않기 위해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과 조사 어록만을 지도 삼아 엮은 팔지 말고 가면 된다고 일러 보냈다. 소승은 공양주나 부전을 두고 수행하지 않는다.
(지금 그 비구니스님은 대구 근교에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있다)

6. 혼자 방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자살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자, 그래도 계속 자살의 끈을 놓지 않는 이가 있어 지인의 소개로 그 집을 방문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눈을 보고는 바로 기도를 5분가량 해주고 내일 새벽에 절에 데리고 오라 하여 다음날 새벽에 한번 기도 후 그는 지금까지 웃는 모습으로 생활을 잘 하고 있다.
본인 왈, 스님이 기도를 시작하자, 갑자기 가슴에서부터 화가 올라오면서 "네가 뭐래..."라는 소리가 생각으로 나오며, 이마에 대고 있던 손을 뿌리치고 싶은 순간 동시에 "내가 스님한테 왜 이러지."하는데 바로 그 때 올라오던 화가 내려가면서 정신이 돌아오더라고 함. 끝나고 물으니 병원에서 우울증이라고 2-3달 약물치료 받아야 한다고..... (거제)



7. 2년전 사찰이 공사를 하고 있을 때, 병고로 삶의 희망을 잃은 이가 절집으로 찾아왔다. 몸이 안 아픈데가 없다며, 큰 병원, 작은 병원 할 것 없이 다니다가 얼마 전 서울대병원 까지 갔었고, 거기서도 약만 잔뜩 가지고 왔다는 것이다. 잘 왔다고 얘기하며 긴 시간 동안 복용한 약을 이 시간부터 끊었다면 기도를 해주겠다고 설득한 후, 새벽기도 동참자들과 더불어 한번 기도받고 난 후 지금까지 아픈 곳 없이 사회 생활을 잘 하고있다. 그때 기도 전 날 살던 곳을 찾아 병원 약을 정리해 보니 큰 소포 백으로 2개가 가득히 차 있었다. (거제)

8. 지인의 소개로 아버지가 건강한 아들을 데리고 왔다. 당시 그는 갓 입대한 군인이었는데, 근무중에 자꾸 힘이 빠져 쓰러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군에서 의가사제대 시킬 요량으로 5일의 휴가를 주면서 큰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부산대병원과 동아대병원에 예약을 해 놓고 왔다는 것이다. 입대 전에도 그러한 현상이 잦아 병원을 찾았으나 병명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다음날 새벽에 데리고 오라 하여 새벽예불시 불자들 입회하에 한번 기도로 건강하게 군 복무 마치고 2012년 초파일쯤에 고향다고 인사하고 지금은 유학길에 올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부산)

9. 오래전 알 만한 대선사 지도하에 선 수련을 오래하였던 83세된 노보살님이 교통사고와 계단에서 뒤로 떨어져 대퇴부를 크게 다쳐 팔, 다리를 못 쓸 뿐만 아니라 아예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 부탁을 받고 그날 석, 박사과정을 모두 마친 나의 도반과 또 다른 동행인이 같이 집을 찾아 누워있는 상태에서 병문안을 여쭙고는 일행들에게는 각각 주문과 경을 독송케 하고, 노보살님한테는 입을 다물고 일념으로 무엇을 하라 하고, 기도를 시작하자 5분도 채 되기 전에 환자 스스로 팔을 들어 올려 큰 원을 그리면서 합장을 하고는 그 손으로 대퇴부를 주무르는 것이다.
그러기를 십 여분 하고는 기도를 마치자, 도반이 묻는다.
"아니 꼼짝도 못하시는 분이 왜 갑자기 팔을 들어 원을 그리고 합장 후에 그 손으로 아픈 부위를 만졌느냐?"고 묻자, 보살 왈 "스님이 기도하자, 갑자기 전기가 온 몸에 흐르듯이 찌릿함을 느끼면서 자신도 모르게 손이 그 쪽으로 가서 주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바른 수행을 하였던 분들은
능력, 소례자 간에 쉽게 교감이 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노보살님의 자녀중에 대학원까지 마친 조계종 스님이 한 분 있었고, 그 인연으로 지금 본 도량에서 학장 소임을 맡아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접신으로 인한 신병 같은 경우는 그 자의 눈을 보고 몸에 접신된 자가 꼭 몇 살 때 죽은 남자, 여자, 몇 명인지 까지를 직관을 통해 단번에 정확히 알아낼 수 있어야 상대를 퇴치할 수 있다. 상대의 눈을 보는 것은 1초면 충분하다.

그리고 난 후, 그를 보내기 위해 가까이 있는 이들은 되도록 돈이 들지 않는 기도를 시키고 있고, 멀리서 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직접 음식을 하게 하여 천도재를 지내주고 있다.

**법력에서 생기는 직관 능력이 없으면
절대 천도시킬 수 없다.**

이외에도 이미 오래 전에 인연이 되어 백혈병, 희귀병 등을 앓던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어서 잘 살고 있으며, 단 병원에서 1%의 소생 가

능성이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받아준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이 없음을 알려드리고,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치유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있다.

본 도량에서는 경전과 조사어록을 통한 -- 건축불사는 관심 없고, 교육불사만 고집하여 일체의 정법만을 실천하고 있으며, 부처님과 조사께서 극구 만류하신 비불교적 행위인 사주, 관상, 철학, 삼재풀이, 삼재기도, 부적, 방생(어류, 조류), 성지순례, 수험생 합격기도, 사업번창 기도, 돈 액수에 따른 큰 등, 작은 등, 인등, 산신기도, 용왕기도 등은 일체 사절 하고 있으며, 방생도 물고기, 조류가 아닌 인간방생을 장려하고 있고, 성지순례 등은 철저히 배제하며, 다만 그 비용으로 수술비가 없어 삶의 희망을 잃은 이들을 위해 쓰라고 가르치고 있다.

부적 쓸 일, 삼재풀이 할 돈 있으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면 좋은 일 생길꺼라고.....
돈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복이 될 수도 있고 화를 자초할 수도 있다.

기도는 불보살님의 가르침대로 공부하고 실천할 때 분명히 가피는 있습니다. 수행과 기도는 불보살님의 힘을 입기 보다는 주인공이 권능을 갖기 위해 꼭 경전의 말씀대로 바른 실천할 때 출, 재가자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그 권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불자 여러분!
무슨 영험 도량, 신통 도량 등에서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사례를 보고 직접 확인코자 하시는 분은 누구든 연락주시거나 왕립 하시면 당사자의 연락처와 그의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부를 꼭 병원까지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장난전화와 호기심에 하는 전화는 일체 사양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러한 사례들이 방송국에 제보가 되어 TV 출연할 수도 있었으나, 소송이 수행에만 몰두코자 사양하였음. (소송은 술, 담배, 커피, 음료수 등은 일체 먹지도 않음.)



불.법.승 정법 실천도량
연 등 사(선재불교대학)
여명 도안 합장
경남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519-3 (충해공원내)
T 055)633-6555

* 많은 글을 쓰고 싶으나, 재정 관계상 이 지면밖에 허락이 안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이러한 글을 쓸 날이 있겠지요.